

산딤성 "울신 응몽산 물길 가상 세…인덕 신와 안계로 신와 시간 길어질 듯"



다 3.5%p↑

이 시각 헤드라인

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보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ON AIR *

춘천 농촌, 폭염 속 닷새째 단수…"씻을 물도 없어요"

입력 2021.07.13 (21:44) | 수정 2021.07.13 (21:53)

 \triangle \triangle <

뉴스 9



키보드 컨트롤 안내



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 ···"항 로 착오로 넘어와"





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.1%…19대보 다 4%p ↑
- 2 이 "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" 윤 "투표 율 기대에 못미쳐"
- 3 "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"···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20대 대통령선거…전국 14,464개 투표소서 진행
- 6 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

표준화질 자동재생 OFF





"살려주세요" 다급한 소리에 달려 가 초등학생 3명 구조

[앵커]

강원도 춘천에선 폭염 경보 속에 수돗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.

특히, 수압이 약한 고지대 마을의 불편이 심각합니다.

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

[리포트]

폭염 경보가 내려진 농촌 마을.

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고, 뙤약볕 아래 서자 금세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.

수돗물 단수 사태 닷새째.

물이라도 한 바가지 마시고 싶지만, 마땅치 않습니다.

[마을방송: "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절대 바로 드시지 마시고."]

서둘러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안.

빨래가 한가득입니다.

마을회관에서 지하수를 길어다 쓰다 보니, 세수는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.

남은 물은 변기 물로 재활용합니다.

[구황모/춘천시 남면 추곡리 : "처음에는 어제 6시, 그 다음에 12시, 오늘 아침 방송에는 또 오후 6시로 지금."]

물 나왔냐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됐습니다.

[성규옥/춘천시 남면 추곡리 : "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...모두 다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 게 수돗물 언제 나오느냐고 인사가."]

또 다른 춘천시 외곽의 농촌 마을.

마을 이장은 트랙터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.

평소 같으면 농업용 비료를 실어날랐겠지만, 지금은 생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.

["이것은 식수, 예."]

춘천에서 대규모 수돗물 단수 사태가 시작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.

춘천시는 매일같이 '오늘이면 물 공급 된다'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, 취재팀이 확인해 보니, 망가진 취수장 펌프는 고치지도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.

사고 당시, 문제의 펌프는 사용기한이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.

또,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상품인데도 대체 펌프도 준비 놓지 않았습니다.

이제 서야 주문이 들어가, 언제 수리가 끝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.

[허명자/춘천시 남산면 백양2리 : "어쩔 수 없죠. 참는 데까지 참아야 하니까. 이사 갈 수도 없고."]

폭염에다 물이 언제 다시 공급될지 모르는 상황에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

촬영기자:최혁환/고명기

■ 제보하기

▶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▶ 전화 : 02-781-1234

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
▷ 뉴스홈페이지 : https://goo.gl/4bWbkG



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KBS가 손수 골랐습니다. **네이버**에서도 보세요.





김문영 기자 mykim@kbs.co.kr 김문영 기자의 기사 모음 ▶

뉴스 9 전체보 기



오늘의 HOT클릭!

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

도…선관위 "모두 유효표"





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"투표했어요~"



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

"경북·강원 산불 났는 데"…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
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 울진·삼척 산불 엿새째…전체 진화율 70% 중국 매체,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···"누가 이기든 한중관계··· '정확하고 재미있게'···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

[영상] "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"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…"국가부도 임박"

지역뉴스

부산 울산 순천 전주

창원

진주 청주

대구 충주

KBS소개 ▲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

안동 춘천 포항 광주 원주

목포

KBS N 채널 ▲

KBS WORLD ...

뉴스 아카이브

KBS /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 / 대표전화 02-781-1000 / 기사배열 책임자, 청소년보호책임자 :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/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/ 시청자상담실 02-781-1000 /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(2010년 6월 23일)